

세계 투자자들, 중국시장 이탈 개시

예측불가 규제·코로나 제로 등 시진핑 일방적 정책에 반기 인도·한국 시장 반사이익 가능성

글로벌 투자자들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책에 반기를 들고 중국 시장을 떠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8일 전했다.

중국 시장의 높은 수익률과 빅테크(거대 정보기술기업)들의 약진 등에 이끌렸던 외국 펀드 등 투자자들이 이제 '빅테크 때리기' 등 예측할 수 없는 규제 정책, '코로나 제로' 정책에 따른 경제적 피해 등 갖가지 중국 시장 외면의 이유로 꼽고 있다.

여기에 부동산 시장 침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지지하는 정책 등도 우려를 한층 키우고 있다.

시 주석은 2013년 집권 이후 상하이·홍콩 증시 교차 매매(후강통) 허용, 위안화 자산의 국제화 추진 등 외국 자본 유치 정책을 펴왔다.

하지만 그가 근래 들어 일방통행식 정책을 강행

하면서 중국이 더는 세계 투자자를 끌어들이는 '자석'이 아니게 됐다는 얘기도 있다.

시 주석은 연말 제20차 공산당 대회를 계기로 3연임을 확정할 목적으로 최대 치적이라고 자부하는 '제로 코로나' 기조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글로벌 투자자들은 언제든 중국 당국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도시 봉쇄를 단행할 것으로 우려한다.

310억달러(약 40조8000억원)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는 영국 투자자 러퍼는 10년 이상 운영해온 홍콩 사무실을 최근 폐쇄했다.

러퍼의 맏 스미스는 "코로나 제로 정책의 끝이 보이지 않고 지정학적 위험이 돌아옴에 따라 지금은 중국 시장을 제쳐놓는 게 편하다"며 서구 자본이 중국을 떠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펀드 정보업체 이머징마켓포트폴리오리서치(EPPFR)는 이달 내놓은 보고서에서 세계 신흥시장 주식 펀드의 중국 시장 비중이 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중국 중심의 상장지수펀드(ETF) 운용사인 크레인 펀드 어드바이저스는 지난 5월 고객 설명회(로드쇼) 행사에서 중국 시장에 투자할 확신이 없

다는 고객들의 상당한 반발에 직면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글로벌 투자자들의 중국 시장 관련 논의가 이전 가격이 내린 중국 자산을 언제 저가 매수할지에 대한 논쟁보다는 익스포저(위험노출액)를 얼마나 줄일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을 대신한 한국의 반사이익 가능성도 제기된다.

씨티그룹은 최근 보고서에서 런던 등 국제 금융시장 고객들이 중국에 대해 관여할 의사가 "높랄 정도로 낮은 수준"이라면서, 이제 고객들은 중국 대신 인도·한국 시장에 주로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보인다.

세계적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인 칼라일 그룹도 85억달러(약 11조2000억원) 규모의 아시아 투자 펀드에서 중국 익스포저를 평상시보다 줄이고 대신 한국·동남아·호주·인도 비중을 높이고 있다고 소식통이 블룸버그에 전했다.

다만 블룸버그는 중국이 21조달러(약 2경7600조원)의 채권시장과 16조달러(약 2경1000조원)의 주식시장의 분기지라는 점을 고려하면 중국 시장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폭염경보 속 더위 식히는 영국 어린이들 영국에서 기록적인 폭염으로 적색 폭염경보가 사상 최초로 발령된 가운데 17일(현지시간) 런던의 한 분수대에서 아이들이 더위를 식히고 있다. /연합뉴스

“옥스퍼드 바이오 혁신허브에 한국 동참하길”

한-영 바이오테크놀러지 포럼 옥스퍼드대 혁신 부총장 밝혀

차스 바운트라 영국 옥스퍼드대 혁신 부총장은 바이오 혁신허브 조성에 한국이 동참해서 시너지를 일으키기를 바란다며 말했다.

주영한국대사관은 17일(현지시간) 바운트라 부총장이 14일 주영한국대사관에서 개최된 한영 바이오&테크놀러지 포럼에 참석해서 이처럼 말했다고 밝혔다.

대사관과 포럼 참석자들이 따르면 바운트라 부총장은 “옥스퍼드를 세계 혁신 허브로 만들고자 하며, 이를 위해 대학 인근에 더 많은 혁신 공간을 조성하려고 한다”며 “스위스 측과 협력을 논의하면서 이스라엘·한국도 함께 하면 좋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암, 팬데믹, 치매 등 고령화에 따른 만성 질환, 기후변화 영향 등 세계적인 도전 과제가 많은데 이를 해결하려면 큰 아이디어, 혁신가와 리더, 자금, 기반시설, 규제기관과의 협력 등을 통해 혁신적인 연구를 해야 한다”면서 “대학이 더는 교육과 연구에 머물러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옥스퍼드대는 이미 산학협력 문화를 토대로 혁신 성과를 내왔으며 아스트라제네카와 함께 코로나19 백신을 단기간에 대량 생산해 이익을 남기지 않고 공급한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미래 많은 질병이 유전자와 세포치료를 퇴치될 수 있다고 본다”며 “제조, 공정 개선, 비용 절감, 효율성 등에서 놀라운 능력을 갖춘 한국과 협력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국의 강점으로는 최고 수준 대학, 거대한 국민보건서비스(NHS) 시장, 대형 제약업체, 좋은 창업환경 등을 내세웠다.

PR회사 손잡고 ‘이미지 세탁’ 피하는 사우디

카슈끄지 암살로 추락한 이미지 현대적 문화 강국으로 바꾸려 시도

중동의 맹주 사우디아라비아가 거대 홍보 회사와 손잡고 국가 이미지 변신을 꾀하고 있다고 미매체 폴리티코가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사우디는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의 암살 이후 실추된 이미지에서 벗어나 ‘새롭고, 현대적인 관광·문화의 나라’라는 인식을 국제사회에 심어주기 위해 글로벌 PR 컨설팅 회사인 에델만과 조력을 받고 있다.

폴리티코가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에델만은 사우디의 국가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바꾸기 위해 ‘서치 비욘드’(Search Beyond)로 명명된 5개년 계획을 제시했다.

이 계획은 할리우드 ‘셀럽’(유명인)을 동원해 사우디 내에서 영화를 찍거나 토크쇼 프로그램을

녹화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또 세계적인 문화 행사와 제휴하거나 화려한 스포츠 행사를 주최하는 방안 등도 거론됐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인기 코미디언 트레버 노아가 진행하는 시사 토크쇼 ‘더 데일리 쇼’를 사우디 곳곳에서 주최하거나 미국 유명 음악축제 ‘코첼라’와 일종의 협력 관계를 맺거나 골든글로브 스타일의 연예 시상식을 사우디에서 여는 식이다.

발리우드 출신의 유명배우 프리양카 초프라 등과 협력 관계를 맺고 그가 출연하는 영화를 사우디에서 찍고, 음악채널 MTV나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등 세계적인 문화 기관과 손을 잡는 등의 아이디어도 제시됐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앞서 카슈끄지 암살 사건 이후 사우디를 국제적인 ‘왕따’로 만들겠다고 공언해왔으나 사우디에 원유 증산을 요청하기 위해 15일 사우디 제다에서 양국 당국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무함마드 왕세자와 얼굴을 맞대었다.



원숭이 두창 백신 접종소에 모여든 뉴욕시 주민들 1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시 브루클린 지구의 부시워크 고교 내에 대규모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 백신 접종소가 설치된 가운데 방문자들이 개소를 앞두고 줄을 잇고 있다. /연합뉴스

인도, 첫 부족민 출신 여성 대통령 나오나

여당 무르무 후보, 산탈 공동체 출신

인도에서 람 나트 코빈드 대통령을 이을 제15대 대통령 투표가 연방 의회와 주 의회에서 18일(현지시간) 일제히 시작된다.

여당인 인도국민당(BJP)은 부족민 출신 여성 정치인 드라우파디 무르무(64)를 차기 대통령 후보로 내세웠다. 야당에서는 재무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 출신의 원로 정치인 야슈वं트 신하가 후보로 나왔

다. 관심은 첫 부족민 출신 대통령이 나올 것인지만다.

현재 연방 의회는 물론 지방 의회 다수도 BJP가 장악하고 있어 전문가들은 무르무의 당선을 점친다. 무르무가 대통령이 되면 부족민 출신으로는 처음이며 여성으로는 두 번째 대통령이 된다.

인도의 부족민 수는 약 1억4000만명으로 카스트 등 인도 전통 사회 질서에 포함되지 않은 변방 집단으로 여겨진다.

인도 동부 오디사에서 태어난 무르무는 인도에

서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큰 부족 산탈 공동체 출신이다.

교사이던 그는 부족민 권리문제를 주장하며 1990년대 후반부터 정치 활동에 나섰다. 이후 오디사에서 상공 부문 부장관(공식 명칭은 국무장관) 등을 역임했고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자르칸드주의 주지사를 맡았다.

무르무에 대항하는 야슈वं트 신하는 과거 BJP 정부에서 재무부와 외교부 장관을 역임한 원로다. 현재 야당인 트리나몰콘그레스(TMC) 소속으로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그의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금남새마을금고 사옥 임대 및 특판 안내

- 1 반경 1km내 아파트 및 오피스텔 7000여 세대 상권유입 가능
- 2 아시아문화전당 인접, 예술의 거리 및 음식의 거리 방문 고객 확보
- 3 사옥 5층 문화센터 상시운영 (골프클럽, 요가, 갤러리)가맹고객 확보
- 4 지하철 2호선 개통시 접근성 양호, 유동인구 폭발 증가

임대 안내

층	호실	임대면적	호별 위치도
1	101호	27평	1층 101, 102, 103
	102호	40평	
	103호	51평	
2	201호	27평	2층 201, 202, 203, 204
	202호	28평	
	203호	43평	
	204호	82평	
3	301호	금남플라네타치과	3층 301, 302, 303
	302호	72평	
	303호	83평	
4	401호	103평	4층 401, 402, 403
	402호	72평	
	403호	83평	
5	501호	MG 문화센터 (갤러리 대관 환영)	
	502호	MG 골프클럽 (회원 대 모집)	

무궁무진 MGM 정기예탁금

3.3%

1년

고이율 입출금 통장

개인을 위한
자신만민자유예탁금 최고 **2.2%**

사업을 위한
등록기업자유예탁금 최고 **2.5%**

MG골프클럽 특가

구분	이용 기간	정상 이용료	금남새마을금고 이용자 할인 특가 (원)		
			30월 이상 (10%)	40월 이상 (15%)	50월 이상 (20%)
정기회원	1개월	200,000	180,000	170,000	160,000
	3개월	570,000	513,000	484,500	456,000
	6개월	1,080,000	972,000	918,000	864,000
	12개월	2,040,000	1,836,000	1,734,000	1,632,000

* 이용자 할인 특가 조건 문의 (영업지원팀)
* 럭키비 - 월 10,000원 (6개월 이상 등록자 무료)
* MG체크카드 이용 시 이용금액의 5% 추가 할인 (최고 할인 금액 2만원)
* 유명 골프 프로 레슨 중

MG금남새마을금고